



“1초라도 더...” 전남대 사범대 체육교육과 실기시험이 16일 오전 대학 체육관에서 실시된 가운데 한 여자 수험생이 안간힘을 쓰며 오래 매달리기를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입양, 이렇게 어려워서야...

## 허가제로 절차 까다롭고 제출 서류 수십건... 문의마저 줄어

### 특례법 시행 이후 광주·전남 한건도 없어

“어려운 결정을 했는데, 막상 입양을 해 품에 안을 아이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

새해 들어 입양을 마음먹고 관련 기관을 통해 아이를 찾고 있는 김모(43·광주시 동구 산수동)씨 부부는 최근 입양 과정에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입양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면서 입양 전 아이의 출생신고가 의무화됐고 허가를 받으려면 소득명세서, 범죄경력 조서서 등 내야하는 서류가 수십 건에 달하기 때문이다. 김씨 부부는 이 때문에 아예 포기할까 생각도 했다.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4개월이 지난 현재 입양을 문의하는 희망자가 줄고, 복잡한 절차와 검증으로 입양 포기도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특례법 시행 이후 유아 유기 사건도 늘고,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입양을 시도하는 사례도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

지고 있다. 국내 최대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 등에 따르면 법 시행 직전인 7월 입양을 문의하는 건수가 반짝 높았다가 법발효 이후엔 반도 안 되는 숫자로 떨어졌다. 또 입양이 성사된 건수도 똑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홀트아동복지회 광주지회의 경우 한해 40건 이상인 입양 건수가 확 줄었으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신청돼 계류 중인 1건 외에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

광주지역의 또 다른 입양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도 특례법 이후 겨우 9건의 입양 허가를 신청해 높은 상태다. 이는 연 평균 50건에 달했던 것에 비하면 극히 저조한 수준이다. 법 시행 이후 입양이 어려운 상황을 틈타, 인터넷 상에서 개인적으로 입양을 문의하는 비공식 루트가 성행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포털사이트의 한 불임부부 카페에 이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내야하는 상황에서 애로를 호소하는 글이 수십 건에 달하고 있다.

한 여성은 “입양센터에 전화하니 법이 바뀌어 아이 아빠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아빠가 동의하지 않아 입양 보낼 수 없다”면서 신생아를 입양 보내고자 한다고 썼다.

광주 입양 기관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법률은 아이를 국외로 보내지 말고 직접 양육하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는 등 좋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며 “어려운 조건들을 보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허가제로 바뀌면서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기관에서도 입양이 의뢰된 모든 건수를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입양 건수가 줄어든 것일 것이라는 예상했다”며 “일시적 감소일 뿐 제도가 정착되면 입양 건수가 정상으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40분 해질 17시 45분 달돋이 10시 44분 달질 23시 45분

**다시 추워져**  
구름 많은 가운데 눈 내리는 곳 있었다.

광주	구름많음	-5/2°C
목포	구름많음	-4/1°C
여수	맑음	-3/2°C
나주	구름많음	-7/2°C
완도	구름많음	-2/2°C
구례	구름많음	-7/2°C
강진	구름많음	-5/2°C
해남	구름많음	-4/2°C
장흥	구름많음	-5/2°C
순천	맑음	-7/2°C
영광	구름많음	-7/0°C
진도	구름많음	-2/2°C
전주	구름많음	-7/0°C
군산	구름많음	-7/-1°C
남원	구름많음	-10/0°C
홍산도	구름많음	0/2°C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관심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관심 보통 낮음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관심 보통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목포 05:52 10:56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18:13 23:24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여수 00:30 06:21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3.0m 12:47 18:56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18(금)	19(토)	20(일)	21(월)	22(화)	23(수)
날씨						
최저/최고	-7/4	-5/6	-3/7	1/4	-2/3	-2/3

## 취학 예정 아동 입학전 예방접종 하세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오는 3월 취학 예정 아동은 입학 전 필수 예방접종 4종을 모두 마쳐야 한다고 학부모에게 16일 당부했다.

취학 예정 아동이 맞아야 하는 백신은 ▲DTaP(디프테리아·백일해·파상풍 혼합백신) 5차 ▲폴리오(소아마비 백신) 4차 ▲MMR(홍역·볼거리·풍진 혼합백신) 2차 ▲일본뇌염 백신(사백신 4차 또는 생백신 2차)이다.

질병관리본부와 교육과학기술부는 3월 2일부터 3개월간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접종 여부를 확인하고 접종을 받도록 학부모에게 권유할 계획이다.

필수 백신 접종 여부는 예방접종도우미 웹사이트(http://nip.cdc.go.kr)나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웹사이트, 모바일 예방접종도우미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 불량식품 '이익몰수제'

### 식약청, 판매업체 10배 과징금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불량식품 척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익몰수제·블랙리스트제 등 강력한 단속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식약청은 16일 불량식품을 제조·판매한 업체에 관련 매출액의 10배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이익몰수제' 등 불량식품 척결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또 3회 이상 상습적으로 불량식품을 판매한 업체의 명단을 공개하는 '블랙리스트제'도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연합뉴스

# 인수위, '선택형 수능' 논란 우려 표명

## 9개 사립대학 유보 입장에 교과부 재보고 받기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올해부터 실시되는 '선택형 수능' 유보 논란에 주목하고 우려를 표명하면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재보고를 받기로 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정책 방향에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문제는 연세대·고려대 등 주요 사립대 9개교 입학처장이 올해부터 치러지는 선택형 수능을 유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뒤 진학지도 교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교총 등이 찬반 논쟁에 가세하면서 교육계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대통령직인수위에 따르면 15일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인수위원들이 선택형 수능 시행에 문제가 없는지 우려를 표

하면서 추후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교과부는 선택형 수능 유보를 둘러싼 논란이 있지만 내용이 박 당선인의 교육공약에 없었으며 이 부분을 아예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남 인수위원들이 먼저 선택형 수능 논란을 언급하면서 관련 내용을 추가로 보고할 것을 주문하자 내부적으로 당혹해하며 보고 자료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과부는 예고대로 선택형 수능을 시행하겠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으며, 전남 업무보고에서도 이 점을 강조했다.

교과부는 주요 사립대 입학처장과 진학교사들의 반대로 촉발된 선택형

수능의 시행 유보 주장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고교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는 데다 수능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인수위는 여러 차례 "인수위가 새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선인의 공약 실현에 초점을 맞춰야"고 강조했지만, 각 부처에 통보한 '7대 업무보고 지침'에서 주요 당면 현안 정책에 대한 내용이 포함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선인 공약에서 선택형 수능 관련 내용이 없었더라도 이 문제가 교육계의 가장 큰 현안이기 때문에 인수위에서의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현재 선택형 수능 유보에 대한 정부와 대학, 교사들의 의견이 뒤죽박죽이 되면서 결국 최종 피해자가 수험생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 광주시내 대기중 미세먼지 비상

### 농도 짙어져 호흡기 환자 등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광주 지역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짙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측정돼 호흡기 환자 등 시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16일 광주기상청과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따르면 지난 12일부터 광주시내 대기중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측정됐다.

실제 광주기상청이 측정된 지난 12일의 대기중 미세먼지농도 167µg/m³(하루 중 가장 높게 나타난 수치)이

으며 13일은 176µg/m³, 14일은 156µg/m³, 15일 143µg/m³로 조사됐다.

이날 오후 2시 현재 대기중 미세먼지농도는 135µg/m³의 수치를 보였다. 이처럼 미세먼지농도가 짙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날씨의 영향이 가장 크다는 설명이다.

이런 현상은 한반도 상공에 북쪽 기압골이 통과한 뒤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점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암 치료 효과

### 나이와 상관없다"

### 환자 의지·신체상태 달려

암 치료 효과는 나이보다 치료의 적극성과 환자의 신체상태에 달려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소화기내과 이상협 교수팀은 2003~2011년 담도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531명을 분석

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연구 결과, 65세 이하 그룹 205명과 65세 이상 그룹 326명의 평균 생존기간이 각각 15개월과 11개월로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 환자 가운데 전신상태가 비슷한 환자를 선정해 치료를 받은 그룹과 받지 않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각각 10개월과 3개월로 치료를 받은 그룹의 생존기간이 3배가 높게 나왔다. /연합뉴스

죽석 프리미엄 뷔페 아이엘리시아  
특허청 서비스표등록 제41-0187289호

150여가지의 즉석메뉴(샐러드, 양식, 일식, 중식, 한식)를 온 가족이 마음껏 취향에 따라 드실수 있는 **죽석 프리미엄뷔페!!**

가격안내 (이용시간: 11:30~22:00)  
 ● 평일 성인(중학생이상) 25,000원  
 ● 토·일·공휴일 성인(중학생이상) 29,000원

각종 모임 및 행사예약 (150석, 92석, 52석, 32석, 24석, 12석)  
 ● 돌잔치, 피로연, 회갑연, 칠순연, 세미나 | ● 출장뷔페, 도시락

예약문의 062)671-1199 | 광주종합버스터미널 2층

24시 유·스퀘어사우나

각종 편의시설 수면실(침대) · 인터넷 · 안마기 · 세션 · 세화

유·스퀘어 2층 아이엘리시아 옆 문의전화 062) 352-4455 | 터미널 주차장 2시간 무료

대한불교조계종 문빈청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빈청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종을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매가 벗겨진 묘, 동정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위식 및 친족, 이웃간의 상호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빈번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시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병문 소식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아승보다 더욱 빈안해야 할 시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상을 멀리 떨어진 산에 모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무등산 문빈청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빈청사 남골당 예약 및 봉안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